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3호 [주제 제25316호] 주제 105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안정수동지,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  
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 입히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실证깊이 새긴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  
계급은 공장을 새 삶에 내  
놓고 자랑할수 있게 현대적  
으로 꾸려놓고 질좋은 비단  
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전면  
시켰을뿐만 아니라 70일  
전투기간 상반년도 인민경  
제계획을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수행하여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충정의 200일전투  
에서도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가고 있는 공장로동계급이 보고설어 봤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1947년 4월에 창립된 김정숙평양제사  
공장에는 매우 단절세워인들의 가슴뜨거운  
혁명사적들이 수많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  
양실을 돌아보면서 사적자료들이 정말  
많다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자 육만 새겨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과 위대한 혁명생애를  
잘 알 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  
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09년  
1월 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  
오시여 공장이 생산도 잘 할뿐만 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치하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기쁨에

넘치신 육성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온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비단실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손꼽아 이끌어  
주시고 모든 영예를 고스란히 공장로동  
계급에게 안겨주시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헌들을 밟고  
정중히 모시었으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꼭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공장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특별한  
관심속에 있던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살며 투쟁하  
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  
활동점검을 구체적으로叮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사직장,  
경방직직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마  
다에서 질좋은 비단실을 생산하기 위해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다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낡은 설비들을 들어내고 현대적

이고 고속화된 설비들을 창안도입, 제작설  
치하여 종업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었을뿐  
아니라 여러 생산공정들을 새로 꾸려놓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푸는데 적극 기여 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공장에서 기술인재육성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일하면서 배울수 있도록 과학  
기술보급실을 개진 확장하고 현대과학기술  
로 둔촌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둘린 결과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종업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  
을 마련해 주기 위해 수영장  
을 갖춘 편의시설, 학아소,  
문화회관 등을 손색없이  
꾸려놓았을뿐만 아니라 공  
장의 수련화, 원령화, 파수  
원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당정책이 구석구석 맥박  
치는 공장, 공장에 차넘  
치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려놓은 현대적인  
위생용품생산공장을 돌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평양기계종합대학, 평양  
방직기계공장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 과학  
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당에서 준 과업을 관철하  
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  
려 현대적인 위생용품생산  
공장을 훌륭히 꾸려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  
작한 위생용품생산설비는  
물론 생산되어 나오는 위생  
용품의 질이 세계적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절령 못할 요새가 없  
다는것을 충분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  
장이 차지하고 있는 뜻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고 제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는데 대한  
문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장을  
로토ацион형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문제, 비단실생산의 기본원료인 누에고  
치생산량을 늘릴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 공장과 해당부  
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돌아보니 별세상에 온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공장을 천리마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찾으실 때마다 천리마공장을 뛰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많이 품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

일본세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장의 어느 곳을 보아도 흠집을 놓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생산에 있어서나 생산문화, 생활문화에 있어서 자신께서 최근에 돌아온 공장을 통해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

제사공장이 오늘처럼 세상에 네놓고 자랑 할만한 본보기 공장, 전형단위로 될 수 있는 것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 혼신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

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위주신 천리마를 라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리던 전세대를처럼 우리 당이 래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끌어잡고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천리마시대에 이어 만리마시대에도 온 나라의 본보기로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

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대해 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풍화국창건 기념일인 9월 9일까지 무조건 완수하여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업무를 빛나게 관철할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황금산, 보물산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조선인민군 제 122호 양묘장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헌신의 자욱을 더듬어

이 땅에 펼쳐질 황금산의 최전성

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나답이 무성해가는 내 나래, 내 조

국의 푸른 숲의 삶에 임소리는 무엇

을 말해주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면 많은 사람들

이 애리온 나루모를 키워내는 양묘

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옳은 말이고 떠나지도 않는

대답이다.

하지만 우리 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열두 달 동안 만도 세차

매나 평도의 자유를 새기며 크나

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나라의

본보기 양묘장으로 일찌과의 주신

조선인민군 제 122호 양묘장을 들

아보는 광경에 이 물음에 대한 정확

한 대답을 찾게 되었다.

절세에 애국자이신 경에 하는

원수님의 그나마 실장에서부터,

그이께서 바쳐하시는 심혈과 뜨거운

우리 조국의 최전성기가 밝아

오고 있다. 우리는 격정에 넘쳐 많

하게 편다.

경에 하는 김정은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모두 힘을 합쳐서 온 나라의

산물을 푸른 숲이 무거진 황금

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 후대들

에게 뜻깊이 물려줄 것이다.』

황금산, 보물산!

푸른 산, 푸른 둘!

조선산원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 하신 어버이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한창의 애국의 역사가 그

길에 새겨져 있는 이 부름을 우리는

제 122호 양묘장의 구내길을 걸을

면서 와꿔본다.

아직은 자그마하고 연약한 듯싶은

애어린 나루모들이지만 휙휙은 양묘

장을 품에 채우며 뿌리를 내리고 시

간이 다르게 솟아오르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창한 것인가.

대 양묘장에 새겨진 나루모의

바다!

나무도 황홀한 경경 앞에 서니 저도

모르게 이러한 간판이 흘러나왔다.

홍분에 넘쳐나는 우리에 대한

양묘장의 과학기술을 통한

우리 조국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에 끌어 새겨져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기습은

물에 젖어들고 양묘장의 한그루의 나

루, 한그루의 풀도 무심히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장군님의 철철하신 네원이

애어린 나루모들에 뜻혀 있는 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주신 애국

현신의 땅에 나루모들에 뿐만 아니라

새들을 펼쳐주는 듯싶었다.

제 122호 양묘장에서 우리 마

음을 머금어 경애한 것은 자주선

별로부터 세루위기, 나루모장에 이

르기까지 자동화, 로보트화, 흐름선

화된 생활용품들이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것이 고도로 현대화된 이 21세기의 양묘장을 이루는 첨단수준의 기계설비들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라니 진정 자랑스럽게 새길 이라는 웨딩이 절로 머금어나왔다.

원래 일군들은 이 기계설비들을 수입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첨단설비들이인지라 엄청난 값을 치르 이어 할 힘 편이 있고 우리 정부는 당당한 수소탄시 험파관련하여 일부 대체세력들이 더 무너지지 말 통증이 절로 머금어나왔다.

그것은 우리 일군들에게 남의 기술, 남의 것을 넘겨다보이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귀족한 전리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계기로 되었다.

일군들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하여 기록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푸른 숲이 우리 조국의 만대대 계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기이하게 세계적인 수준의 양묘장을 우리 힘으로 험파관련하여 기록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에서는 불소 설계자, 일군들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은 나루모제재장, 수심제재의 신실과 신실을 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여제 날의 모습을 땀에 기식으로 가

아니라 환경에 험파관련하고 새롭게 일군에게 차력사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양묘장을 세우는 일

## 200일 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 려명거리 건설장에서 다발적, 련발적으로 올리는 승전포성

22동의 살림집 글조공사 완성, 3000여 세대의 살림집 글조 형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자랑한 현실로 펼쳐나갈 불리는 협의를 안고 건설전투장마다 대비약, 대학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판방에 펼쳐나가야 한다.』

려명거리 건설장에 단숨에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 치고 있다.

지난 19일 대성 5·1·4 2호동 살림집 건설을 맡은 조선인

민군 김영근소속부에서 33층 살림집 글조공사를 완성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 대에서 대성 5·3·7·4호동 35층 살림집 글조공사를 끝나는 협의를 안고 건설전투장마다 대비약, 대학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판방에 펼쳐나가야 한다.』

려명거리 건설장에 단숨에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 치고 있다.

지난 19일 대성 5·1·4 2호동 살림집 글조공사를 끝나는 협의를

6월에 들어와 8일과 9일, 11일과 12일, 14일과 15일에 이어 또다시 다발적,

연발적으로 올려피진 살림집 글조공사 완공의 우렁찬 충전포성

제 마감하였다. 20일에는 대성 56·114호동, 대성 52·117호동 10층과 12층 살림집 글조공사 끝나는 협의를 파시하고 있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비단도 떠는 협명거리 건설

장식으로 20일 현재까지 22동의 살림집 글조공사가 완성되고

민군 건설자들은 협명영, 투쟁

열, 경쟁열을 백배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 혁신을 펼친 정신력에

파 날을 이어왔다.

조선인민군 김영근소속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지난 19일 대성 5·1·4 2호동 33층 살림집 글조공사를 끝내고 충전

제 려명거리 건설에 참가한 군인

의 활성을 터쳐올리었다.

이곳 부대 장병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맞으

며 글조공사를 기하여 혁성할

동은 목표를 세기하고 총돌격

전에 파악해 진입하였다. 부대

당조직에서는 승리의 담보를

지었다.

서 찾고 그들의 실장에 불을 다

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풍세적으로

만년대개의 해국위업을 자기불

로 빌리었다. 부대 지휘관들은

의 손으로 실현해 간다는 궁지

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세계안은 병사들은 휘를 조립파

운집마다 훈합물터링 등 모든

공정마다

체험을 터쳐올리었다.

매 일에 일의 전투실적을

금수산태 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 보고드린다

는 충성의 마음을 암고 전투장

마디에서 떡두의 혁명정신, 떡

두의 깅마황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당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풀까



## 성과의 비결은 인재를 중시한데 있다

강계시당위원회 사업에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주동하는 힘있는 당조직정치사업

강계시당위원회에서는 주제 102(2013)년 6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이후 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능부신 성과를 안았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어머가지로 분석 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중 하나가 바로 인재를 찾아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이 역할을 다하도록 시당위원회 사업에 헌신 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도 주민들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재들의 역할을 높이며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3년 전 시당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창선동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찾은 하나의 교훈이 있다.

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세멘트공장, 기와공장, 외장재 공장을 주거세우는데 많은 힘을 들였으나 일정한 기임이 지나도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았다.

기와공장의 제품의 질이 좋지 못하였고 세멘트공장, 외장재 공장 역시 면박 차이가 없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시에서 생산된 세멘트는 기본건설에

는 쓰이지 못하고 보조자재로 리용되었고 외장재와 기와도 몇달이 지나면 외색되고 부식되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하였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시당위원장은 실비, 자재, 자금을 비롯하여 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어 주민들을 대체로 호평을 받았는데 온을 내지 못하는 원인을 두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기업관리를 책임진 일군이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실리에 맞지 하지 못한데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생산물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못한데 있었다. 이 두가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려면 허락해 주면 된다.

시당위원장은 그에게 기와 공장에 원자재 사업을 맡기면서 기와의 질을 높이고 생산도 높일 수 있다. 보았다.

하지만 일군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않았다.

일부 일군들은 기업관리를 해보지 못한 그가 한계를 넘어서 생산물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못한데 있어 그는 기와의 질을 높이고 생산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일군들의 생각은 하

나같이 않았다. 또 하나의 실비를 들수 있다.

당시 세멘트공장 청탁부원

경 생산부원이었던 청탁부원은 대학을 졸업한 후 공장에서 일하면서 높은 실력을 보여준 것이다.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협명을 펼쳤다.

문제를 이렇게 본 시당위원장은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는 것과 함께 그들을 대체로 해제 당 부문에 배치하고 역할을 높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펼쳤던 것이다.

안학동무는 공장의 일군들과

파 기술집단을 이용해 생산공

과 기술집단을



